

# 하청노동자 6명 산재사망 현대건설... '최악 기업' 불명예

### 민주노총 등 현대건설 앞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엔 잇단 광주 참사 현대산업개발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6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직전 해에 가장 많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의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총 6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

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살인기업 선정식은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하청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까지 합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06년, 2012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해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2위는 화장품 원료를 만들다 폭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평이 꼽혔다. 공동 3위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이었다. 각각 4명의 하청 노동자가 협착, 깔림,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버스정

류장을 덮쳐 버스 승객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1월11일에는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타설작업 중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반복됐다.

노동계는 "특별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현대산업개발은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돈을 좇느라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요진건설산업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여천NCC 폭발 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꼽았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 사망 사고는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위험의 구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옥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건설 하청노동자 6명, 대평 원청노동자 5명, 태영건설 하청노동자 4명 대우건설 하청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순위를 공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조를 만들고 방치해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에는 2020년 4월 이전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한이스프레스를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오유나기자



**'카네이션에서 피어나는 희망'** 5월 여비날과 스승의 날 등 카네이션 성수기를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화훼농가에서 농부가 카네이션 출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화훼농가들은 5월 가정의 달이 코로나19 여파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 양성애자야" 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 재판부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확립 저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 하던 지난 2020년 6월 고모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훈련하는 IBS 부대훈련 미시사 부대 잔류인원으로 분류돼 해병대 제2사단 예하부대 신병 대기실에서 B일병, C일병과 함께 생활했다.

선임병이었던 A씨는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B일병을 불러 자신의 배 위에 앉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일병을 강제추행

한 다음날에는 B일병과 C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양옆에 눕도록 한 뒤 "나는 양성애자여서 너네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B·C일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어, 집주인 아니네' 엉뚱한 이웃에 삼단봉 휘두른 30대

### 이웃 여러 명, 항의중 발생

늦은 시간대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이웃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먼저 와 항의하던 또다른 이웃을 집주인으로 착각, 삼단봉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웃에게 삼단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

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광산구의 아파트 1층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를 향해 금속 재질의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음이 발생한 세대 앞으로 찾아갔는데, 때마침 이 집주인과 승강기를 밟이던 B씨를 향해 삼단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삼단봉에 머리

를 맞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해당 세대 앞에서는 B씨를 비롯한 이웃 여러 명이 집주인에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집주인으로 착각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